17th

2009
2026

시론 02
'건축주 지정 감리' 제도에 대한 고민

건축사 인터뷰 03
사람을 위한 공간, 기억에 남는 건축을 꿈꾸다 _ 노대민 건축사 / 가호 건축사사무소

작품소개 04-06
숲으로 가는 길 _ 윤미순 건축사 / 미 건축사사무소
동심이 머무는 풍경, 일상에 쉼을 더하다. _ 임현정 건축사 / 림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박효은 건축사 / 에스더 건축사 사무소
KANCER _ 은철영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스페이스

뉴스 07-09
2026 광주건축사회 제9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전남광주 동구, 전국 자치구 첫 건축민원 소통위원회 출범
2026 광주아시아국제건축대전, 11월 3일 개막
전라남도건축사회, 2026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관
전남 영암지역건축사회, 지역 인재 육성 위해 300만원 기탁
전남 화순군, 지역 건축사·개발업체와 간담회 개최
제27회 전북건축문화제 개최... 미래 건축 방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2026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전주지역건축사회, 제3차 포럼 개최

종합뉴스 10
익산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제안합니다.

제27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11-12
대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산후케어센터 다온'
금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군산시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은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군산시 생활 SOC 복합화 가족센터'
동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지질공원 거점센터'

건 축 문 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6.11월호(204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건축주 지정 감리’ 제도에 대한 고민



서윤지 건축사(전남)

건축사사무소 새하
saeha3330@daum.net

현재의 건축 감리 제도는 ‘공사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해체 감리) 등 부끄러운 결과로 인해 감리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건축주 지정 감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민해 보고 ‘허가권자 지정 감리’의 옹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건축주 지정 감리’는 감리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구조이다. 건축주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에서 감리자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대해 감리자로서 감독 및 지도를 지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감리자의 태도를 건축주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는다고 보며, 감리자에 대해 계약 파기 등을 무기로 감리자를 행정적인 보조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감리기간 동안 감리자는 공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는 허가권자 및 지자체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감리자를 투입하는 기간 동안 감독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제이다. 즉 ‘허가권자 지정 감리’로 인한 공공성의 보장은 사적 서비스에 불과해 보이던 현 감리제도와 다르게 ‘공적 안전망으로 전환’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만약 지자체가 감리비를 예치해둔다면, 저가 수주로 인한 폐해를 막는 것은 물론, 감리원의 인건비도 적절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급 방식 또한 투명하게 유지된다면, 전문적인 감리인 배출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감리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된다.

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 경쟁은 역으로 배치 감리원에 대한 인건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저임금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고령자, 자격만 갖춘 비경력자 등을 고려하게 만들어 실제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적정 단가는 비전문가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이며, 실질적인 교육 및 경험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동시에 적정한 임금은 감리자의 자긍심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건축 감리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이론적 교육을 지양하고 단계별 현장 실습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단계별 감리 항목이 있듯이, 단계에 맞는 토목, 기초, 골조, 마감 등의 현장 실습을 국토안전관리원과 조율해 시공 전문가를 직접 만나 교육받는다면, 감리자로서 전문성 확보와 현장의 이해를 통한 합의점을 찾아가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두고, 건축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기를 늦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하지만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 장기적 관점에서의 하자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잠깐의 늦춰짐으로 발생하는 피해보다 이점이 크다.

신뢰받는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사의 전문 분야인 ‘감리’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설계자와 시공자,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보호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그런 만큼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도 정착을 통해 감리자의 위상이 바로서기를 바라본다.

건축문화사랑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외 회원 일동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현군출** 외 회원일동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이경일** 외 회원일동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송동훈** 외 회원일동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 **정일현** 외 회원일동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 **한민규** 외 회원일동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이성열** 외 회원일동
충청북도건축사회 회장 **김종도** 외 회원일동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정병거** 외 회원일동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양정식** 외 회원일동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회장 **현상훈** 외 회원일동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김경섭** 외 회원일동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조한묵** 외 회원일동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강필서** 외 회원일동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김영철** 외 회원일동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최원식** 외 회원일동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강미숙** 외 회원일동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박성준** 외 회원일동

대한건축사협회

사람을 위한 공간, 기억에 남는 건축을 꿈꾸다

가호 건축사사무소 노대민 건축사와의 만남

건축문화사랑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노대민 건축사(전남)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여수에서 가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노대민입니다.

2023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2025년 가호건축사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축은 사용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변화를 유연하게 담아내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Q. 건축사사무소 이름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건축은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고 공간에 애정을 느끼며 추억을 쌓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소 이름을 고민하면서 제가 만들고 싶은 공간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았고, 좋은 집과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담아 '가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용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오래도록 애정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다짐도 함께 담았습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실무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설계업무의 범위와 책임에 비해 적정한 대가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낮은 가격을 중심으로 사무소를 선택하는 환경이 지속되면 충분한 설계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협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가지급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설계 또는 업무하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있을까요?

개소 후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공항과 인접한 마을의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감리를 맡지는 않았지만, 건축주와 감리자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원활하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준공 후에도 사용자들이 건물을 이용할 때 필요한 부분과 유지관리, 실제 공간의 활용에 관해 건축주와 소통했습니다. 설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사용되며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습니다.

Q. 본인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은 지역 건축물이나 건축인이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축인은 대학 시절 은사님이셨던 정금호 교수님입니다. 전시관 설계 과제를 수행하며 한 학기 동안 매주 10개의 스터디 모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동선과 공간의 위계를 반복해서 분석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과 감출 것을 구분하고, 사용자의 행태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 수업은 건축을 깊이 바라보는 흥미와 끊임없이 연구하며 발전하는 태도를 길러주었으며, 제가 건축설계의 길을 걷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르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기적 같고 특별한 에피소드입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건축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업무영역을 넓혀 다양한 유형의 건축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소규모 공공건축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목소리를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고, 다양한 활동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려운 건축시장 속에서도 선·후배 건축사들이 경험을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



여수시 단독주택



여수시 상가주택



여수시 상가주택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안길전 건축사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시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 T. 062-233-7151 F. 062-233-7153	임현정 건축사 림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시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16번길 22, 501호 T. 061-285-8677 F. 061-285-8678	김민호 건축사 너울 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시 서구 풍암1로 7, 502호 T. 062-654-0370 F. 062-651-0370	박진호 건축사 (유)와이피그룹이감 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시 서구 화정로49번길 3, 3층 T. 062-385-1401 F. 062-385-1412
양병범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전남광주시 서구 운천로103번길 4, 3층 T. 062-267-2267 F. 062-267-2268	유영신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뜰 전남광주시 북구 첨단연신로 88, 허드슨1041 8층 805호 T. 062-710-7630 F. 062-710-7631	김정선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진류헌 전남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17, 502호 T. 062-972-2104 F. 062-972-2105	허만수 건축사 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시 북구 일곡로41번길 35, 1층 T. 062-573-3001 F. 062-573-3011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숲으로 가는 길

윤미순 건축사 / 미 건축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8-4 / Tel. 063-857-0057



대지위치 :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 대지면적 : 348㎡ / 건축면적 : 116.59㎡ / 연면적 : 99.28㎡ /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 주요마감 : 징크판넬

대지의 레벨차를 활용하여 지형에 순응하면서 기존 단독주택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였다. 주변 지형과 만나며 웅장하고 아름다운 숲을 배경으로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자 한다.

쉼과 휴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두고 자연을 바라볼 수 있게 공간을 내밀고 창을 계획하고 자연 속에 있는듯한 아늑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

함께 머물되 각자의 속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상의 시간을 끌어들인 숲속공간, 건축주의 끈임없는 도전, 빠른일상 속 잠시 속도를 늦추고 함께 머물며 회복되도록 스스로 돌볼 수 있기를 고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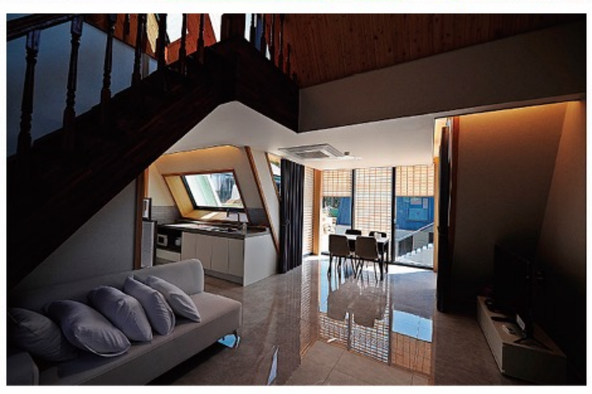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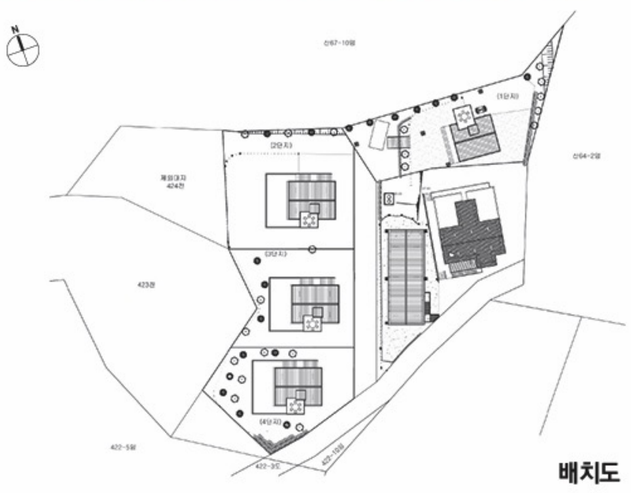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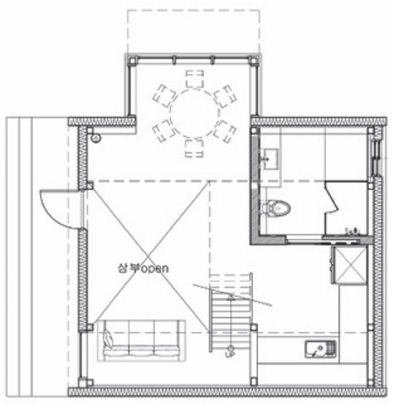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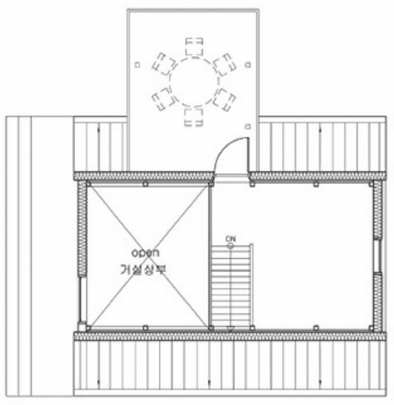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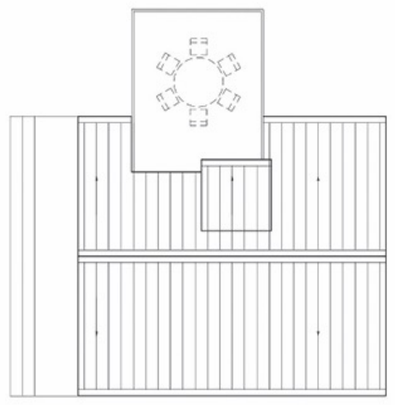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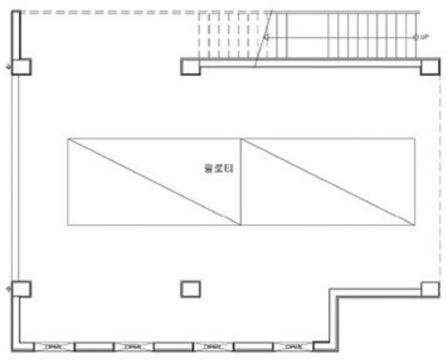
1단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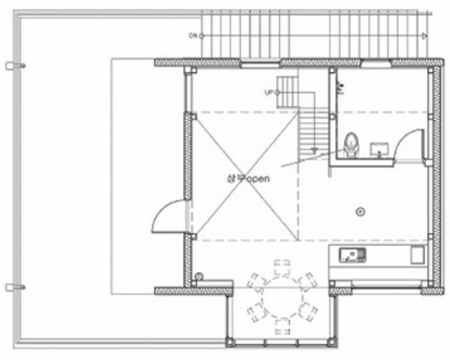
1단지 다락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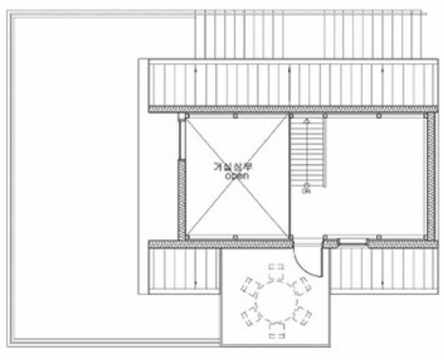
1단지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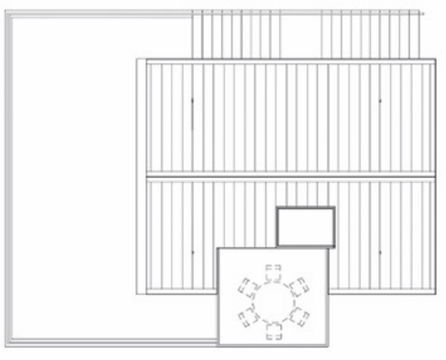
2,3,4단지 1층 평면도



2,3,4단지 2층 평면도



2,3,4단지 다락층 평면도



2,3,4단지 지붕층 평면도



1단지 정면도 / 1단지 우측면도 / 1단지 배면도 / 1단지 단면도 / 2,3,4단지 정면도 / 2,3,4단지 우측면도 / 2,3,4단지 좌측면도 / 2,3,4단지 배면도 / 2,3,4단지 단면도

전라남도건축사회

동심이 머무는 풍경, 일상에 쉼을 더하다.

나산초 선진형 학교 다 담은 화장실

임현정 건축사 / 림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16번길 22 / Tel. 061-285-8677
박효은 건축사 / 에스더 건축사 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복산길12번길 15, 2층 / Tel. 061-246-8825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2441-8 / 대지면적 : 20,593.00㎡ / 건축면적 : 150.00㎡ / 연면적 : 150.00㎡
건폐율 : 10.49% / 용적률 : 15.31%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라임플라스터(유럽미장), 템바보드, 모자익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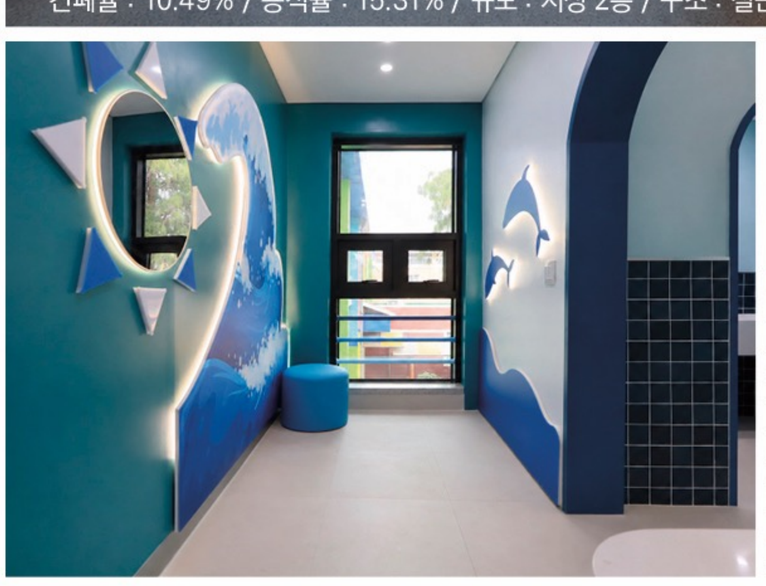
작은 학교의 경쟁력은 학생들이 매일 마주하는 공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화장실은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공간이기에, 단순한 위생시설을 넘어 친근하고 놀이터와 같은 상상의 공간을 선물하고 싶었다.

학생 참여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제안한 물고기, 돌고래, 파도, 나무, 구름, 토끼 등의 소재를 공간 속에 담아냈다. 남학생 화장실은 바닷속 풍경으로, 여학생 화장실은 동화 속 작은 아지트로 연출했다. 학년별 눈높이를 고려한 세면대와 조명거울에도 학생들의 상상과 바람을 담아 동심을 자극하는 배려를 더했다. 평범한 손 씻기와 양치의 순간마저 즐거운 일상의 풍경이 되기를 바랐다.

교직원 화장실은 따뜻한 목재 질감과 은은한 조명, 초록빛 식재가 어우러진 작은 쉼터로 계획했다. 감성적인 파우더존과 전신 조명 거울을 통해 분주한 일상 속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여유를 담았다.

이 공간이 학생들에게는 상상력과 즐거움을, 교직원에게는 따뜻한 쉼과 위로를 전하는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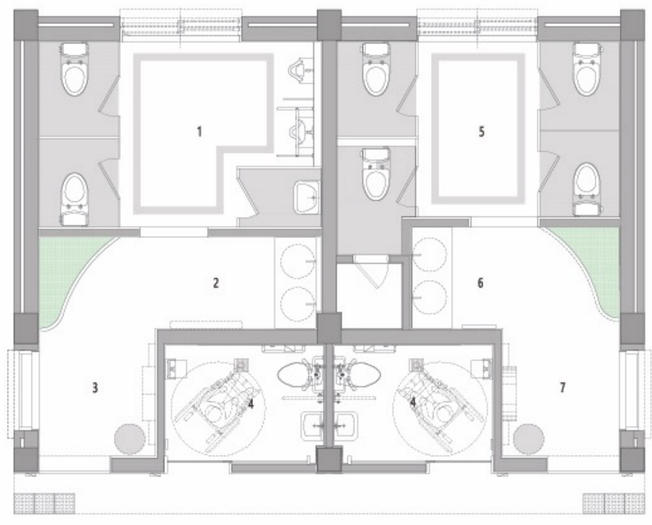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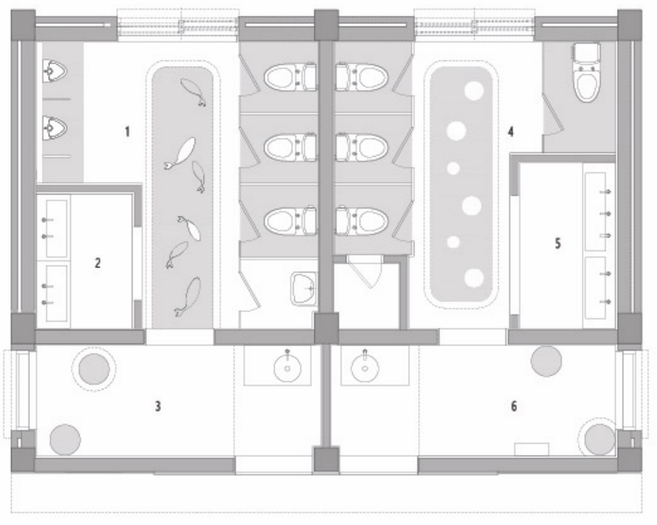






1. Toilet_Men 2. Wash Area 3. Vanity Area 4. Accessible 5. Toilet_ Women 6. Wash Area 7. Vanity Area

1층 평면도



1. Toilet_Men 2. Wash Area 3. Student Lounge 4. Toilet_ Women 5. Wash Area 6. Student Lounge

2층 평면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KANCER

은철영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앤스페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53번길 2, 1층 / Tel. 062-653-0058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농성동 647-1 / 대지면적 : 1,661.90㎡ / 연면적 : 8,566.97㎡ / 건폐율 : 53.23% / 용적률 : 385.83%
규모 : 지상 2층, 지상 10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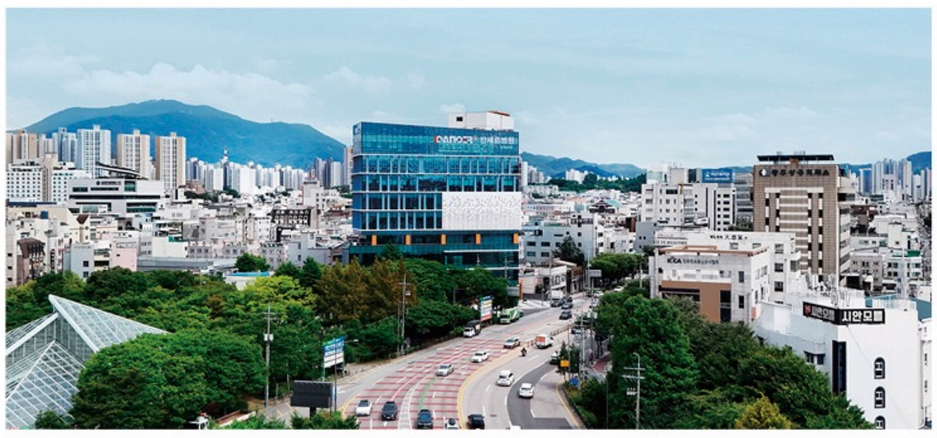
칸세르빌딩은 광주송정역에서 농성광장으로 이어지는 도심관문의 경관지점에 지어졌다.

광주도심의 상징성이 강한 지역으로 지역민에게 소통과 개방을 강조하기 위한 커튼월을 입혀,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환자들에게 언제나 나다닐수 있는 바로 앞 농성광장 공원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대지를 중심으로 사선으로 흘러가는 두개의 도시축에 매스(Mass)를 구축하여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기능 그리고 도시의 맥락과 상징성을 모두 담아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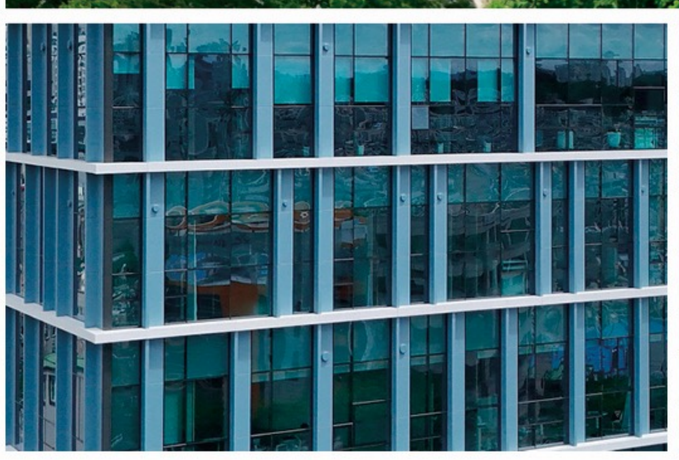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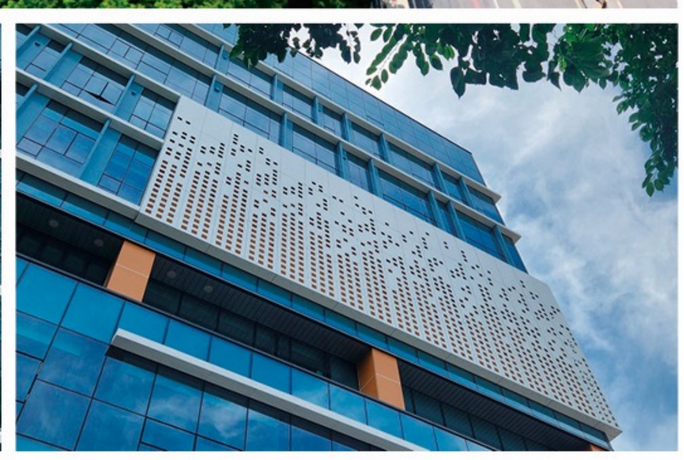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및 배치도







2026 광주건축사회 제9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과 소통을 강화



광주건축사회는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6 광주건축사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바쁜 업무와 일상에서 벗어나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청팀과 홍팀의 선수단 입장식을 시작으로 개막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대회사 및 축사, 선수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가자들은 준비운동과 회장단 시축을 통해 본격적인 체육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한마음운동회에서는 회원들이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명랑체육경기에 참여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경기장 곳곳에서는 웃음과 활기찬 응원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축하공연과 회원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화합의 장'이 마련돼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회원들은 함께 웃고 즐기며 평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폐회식에서는 경기 결과에 따른 시상과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필서 회장은 "건축경기의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회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체육대회가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6 광주아시아국제건축대전, 11월 3일 개막

젊은 건축인들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국제 건축문화 교류의 장으로 마련



'2026 광주아시아국제건축대전'이 지난 11월 3일부터 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6관 전시장과 대나무숲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개막식과 시상식은 3일 오후 2시 복합6관 B2홀에서 진행됐다. 올해 행사는 전국 대학은 물론 해외 학생들까지 참여하면서 젊은 건축인들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국제 건축문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국제건축공모전에는 모두 183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거쳐 본상 후보작 10개를 선정한 뒤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공모전의 주제는 '참여+건축'으로, 건축을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설계하고 조성하는 작업에서 벗어나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데 의미를 뒀다. 학생들은 도시와 공동체, 일상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건축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건축문화 행사가 전국 대학과 해외 학생들의 참여로 확대되면서 광주가 아시아 건축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건축을 매개로 다양한 지역과 문화권의 시각을 공유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 김기준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회장은 "학생들의 작품에는 각자가 경험한 도시와 사회, 일상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며 "시민들이 다양한 작품을 직접 살펴보며 젊은 건축인들이 미래의 도시와 건축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특별시 동구, 전국 자치구 첫 건축민원 소통위원회 출범

건축공사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사진 = 동구청 제공)

광주특별시 동구가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건축·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축민원 소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구는 29일 구청 상황실에서 건축·법률 분야 전문가 위촉식을 열고 건축공사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갈등 중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건축물 균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 관계자와 주민 사이의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건축 분야 전문가 5명과 법률 전문가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민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지원 분야는 건축물 안전 상태 확인과 균열 등 재산 피해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 자문, 일조권·조망권 및 건축 인허가 적법성 상담, 공사 피해 보상 관련 갈등 중재 등이다. 특히 주민과 공사 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큰 민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기술적·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소통을 지원하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동구는 이번 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존 행정기관 중심의 민원 처리에서 한발 나아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현장 중심의 갈등 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축민원 소통위원회가 주민과 공사 관계자를 연결하는 창구가 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 2027년도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 기존 등록 건축사도 신규 신청 필수

전남광주시는 2027년도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할 업무대행 건축사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11월 16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상은 (구)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마친 건축사다. 개인사업자의 소속 건축사는 제외되며, 법인은 대표 건축사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등록 건축사도 신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개설신고확인증 사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명부 운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건축안전과 건축행정팀(062-613-1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벌점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전라남도건축사회, 2026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관

회원 40여명 참여... 건축산업 동향 파악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린 '2026 한국건축산업대전'을 참관했다. 이번 참관은 건축문화예술과 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최신 건축기술과 산업 동향을 살펴보며 회원 간 정보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건축자재와 관련 기술을 살펴보고, 건축산업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건축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접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참관은 회원들이 건축산업의 최신 흐름을 직접 확인하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이번 참관이 회원들에게 건축산업의 최신 기술과 변화하는 흐름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다양한 건축정보를 접하고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류와 참여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지역건축사회, 지역 인재 육성 위해 300만원 기탁

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 인재육성기금 전달... 지역 청소년의 꿈과 성장 응원



(사진 = 영암군청 제공)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 영암지역건축사회(회장 정순흥)는 지난 20일 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영암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뜻을 모아 마련됐다. 정순흥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고 영암 학생들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1월 출범한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사업을 비롯해 '영암스타 50인' 육성,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 체험학습, 대학생 멘토링, 마을교육생태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지역건축사회의 이번 기탁은 지역 건축사들이 전문 분야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세대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전남 화순군, 지역 건축사·개발업체와 간담회 개최

건축 인허가 제도 변경사항 공유 및 신속·공정한 행정 추진 논의



화순군은 지난 25일 도곡면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화순군 건축사 및 개발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건축사 및 개발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지락 화순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 개발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축 인허가 관련 주요 협조사항 안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화순군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허가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건축사 월례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민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축사와 개발업체에 인허가 신청 전 담당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서류 보완사항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민종 화순군 인허가과장은 "앞으로도 건축사 및 개발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요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겠다" 고 말했다.

광주특별시 광양시, 건축·토목 설계사 간담회 개최

인허가 업무 개선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방안 논의



(사진 = 광양시 제공)

광주특별시 광양시는 지역 건축·토목 설계사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건축·토목 설계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설계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정된 건축·토목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를 점검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류 보완 요구 등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설계사들은 실무 과정에서 겪는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 관계자는 "원활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설계사와 담당 공무원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S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침하지반보강/복원
EcoSM 지반개량
마이크로파일
팽이기초공법
로타리파일(헬리컬)
강관압입파일
DEEP FOUNDATIONS INSTITUTE DFI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제27회 전북건축문화제 개최... 미래 건축 방향 모색

건축문화 발전과 우수 건축작품 공유... 건축인과 도민 소통의 장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지난 2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전북건축문화제'에 참여해 지역 건축문화의 발전과 미래 건축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건축문화제는 전북지역 건축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문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우수 건축작품 전시, 건축 관련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건축문화상 수상작과 우수 건축작품을 통해 지역 건축의 성과를 공유하고, 건축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 또한 건축사와 건축 관계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알리고, 건축인과 도민이 함께 소통하며 지역 건축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전북건축문화제는 지난 2000년부터 이어져 온 지역 대표 건축문화 행사로, 건축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우수한 건축문화를 알리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2026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11월 27일 고창읍성 일원에서 진행... 회원 및 가족 간 화합과 친목 도모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오는 11월 27일 고창읍성 일원에서 '2026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자연 속에서 걷기 활동을 즐기며 친목을 다지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걷기대회는 고창읍성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 고창읍성 내 주요 산책로와 노동저수지 일원을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고창읍성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돼 건축사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회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이번 걷기대회가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제3차 포럼 개최

'공정한 대가, 신뢰받는 건축의 시작입니다' 주제로 건축사 업무환경 개선 논의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오는 11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관 5층에서 '제3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공정한 대가, 신뢰받는 건축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건축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업무대가 산정과 건축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건축사들이 실무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과업지시서와 계약 관련 사항, 해체계획 업무대가 산정 등을 다루며, 민간부문에서는 건축물 민간대가 고시안과 용도변경 업무범위, 계약 전 전문상담 비용 등 실무와 밀접한 현안을 논의한다.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합리적인 업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건축사들의 전문성과 권익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가을, 그리고 그리움



가을이 깊어갈수록
계절의 그리움은
단풍잎처럼 물들어 간다

선연한 가을 바람은
떠난 이의 목소리를 싣고
빈 가지 끝에 추억을 심는다

마주하며 걷던 숲속길엔
낙엽만 발끝에 채이고
잡고있던 따스한 손길은
미련과 함께 깊어만 간다

떠나려는 계절의 그리움은
잊으려 할수록 깊어지고
사랑은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가

노을 붉게 번지는 저녁 하늘
차마 부르지 못한 채
사라져가야 하는 이름 하나
가슴속에 고이 접어 둔다

아, 가을은
떠나는 계절이 아니라
그리운 것들이 돌아와
마음 깊이 새겨지는
그런 암각의 시간인가 보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8명 (2026. 11. 5. 기준)

• 입회
- 이혁준 건축사 / 시즌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북구 양일로 190, 본관 2층 203호

• 전출
- 김경우 건축사 / 은 건축사사무소 → 전남 전출
- 장우창 건축사 / 가온누리 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전출

• 결혼
- 염양규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기단 / 딸 결혼 – 2026년 10월 31일(토)
- 김재도 건축사 / (주)이공디벨로퍼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11월 8일(토)
- 정재한 건축사 / 모건아트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12월 5일(토)

• 부고
- 장기섭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온도 / 빙모상 – 2026년 10월 30일(금)
- 정준태 건축사 / 인성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6년 11월 5일(목)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94명 (2026. 11. 5. 기준)

• 입회
- 김은선 건축사 / 아인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6-1, 201호

• 전입
- 김경우 건축사 / 은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59-3

• 변경(소재지)
- 김영익 건축사 / 이음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2, 2층

• 결혼
- 이경일 건축사 / (유)원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2026년 11월 21일(토)
- 장세윤 건축사 / 이레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2026년 11월 21일(토)

• 부고
- 김용순 건축사 / 뿌리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11월 1일(일)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33명 (2026. 11. 5. 기준)

• 결혼
- 문병률 건축사 / 포럼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10월 17일(토)
- 김상수 건축사 / 한솔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10월 31일(토)
- 이성열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중원 / 딸 결혼 – 2026년 11월 7일(토)
- 이주영 건축사 / 여름숲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2026년 11월 7일(토)
- 정범수 건축사 / 남북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11월 8일(일)

• 부고
- 박종환 건축사 / 늘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6년 10월 14일(수)
- 문창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디엠 / 부친상 – 2026년 10월 15일(목)
- 장성호 건축사 / 장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6년 10월 23일(금)

전북 익산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제안합니다.

익산시 장기적인 주택공급 방안 제안 설명회 개최
익산지역건축사회·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한국주거학회 호남지부 공동 주관

지난 27일 관련 학회, 전문가, 시민,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익산시 장기적인 주택공급 방안 제안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 익산시의 주택 공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시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익산지역건축사회장 채준섭(공학박사.건축사)이 공신력 있는 전문 단체인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장 유희종(호원대 교수)와 한국주거학회 호남지부위원장 이민아(군산대 교수)에 제안하여 공동 개최되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전북건축사협회 이성열 회장, 한국주거학회 최병숙 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설명회에서는 주관 단체인 익산지역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한국주거학회 호남지부(이하 학회 등)에서 익산시 주택공급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이날 논의한 결과는 제안서 형태로 추후 익산시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학회 등은 분석을 통해, 익산시의 경우 과거 2020년 이전 주택공급 부족 시기에 택지개발로 공급이 활발했던 인근 전주, 완주, 군산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었으며, 특히 2018~2020년 사이에 년간 5,000~6,000명 씩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였고, 주택 가격 또한 금리변화가 크지 않았던 2016~2020년 전주, 군산 등 인근 지역의 주택 평균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익산시의 경우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서민층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인구 유출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2020년 즈음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이 증가한 이후, 인구 감소가 둔화되고, 청년 인구 증가, 출산율 증가 등의 순기능으로 작용했으며, 단순히 주택 공급만으로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지만 도시 특성상 인근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함에 따라 과거 유출된 인구가 재유입된 결과로 보았다.

반면 2022년 금리상승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한 상황에 맞물려, 익산시의 특례사업 등의 공급 시기가 2024~2025년으로 집중되어 일시적으로 과다 공급됨에 따라 기존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은 아쉬움으로 표현했다. 학회 등은 익산시의 향후 주택 수요·공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20년 이전 익산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 수요 기준인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가구당 인구수는 2016년 2.43명에서 2026년 6월 1.99명으로 2명 이하까지 줄어든 상황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이 추세는 2035년까지도 지속되어 주택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년간 약 1,300세대~1,400세대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주택경기 악화로 향후 익산시 주택 공급은 저조할 것으로 보여지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예정된 주택 공급이 정상적으로 시행됨을 감안하여 2035년까지의 수요·공급을 분석한 결과, 약 3,100세대~5,600세대의 장기적인 관점의 주택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새만금 관문도시, 현대차 투자 결정과 연계한 광역 생활권 주거 수요를 흡수하고, 반도체 소부장 단지 지정, 공공기관 이전, KTX 복합환승센터 등 외부 인구 유입에 따른 신규 주거수요 발생을 대비하면 추가로 선제적인 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에서는 주택공급이 택지개발 외에는 민간사업 의존도가 높은 한계가 있으나 인근 현황, 주택공급 추이, 난개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재·적소 수요맞춤 공급을 유도하여야 하며, 새만금 등 정부 사업의 큰틀을 감안하여 전주-군산-익산을 연계한 장기적인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하므로 택지개발을 위치, 시행시기, 공급량, 착공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수도권은 공급을 줄이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만 지방은 공급을 줄이면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됨을 강조하며, 당장의 우려로 공급을 인위적으로 중단할 경우, 몇년 후 다시 과거처럼 인근 시·군으로의 인구유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국주거학회 호남지부에서는 주택공급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주거약자의 주거지원, 정책지원이 중요하므로 주거복지에 대해 충분한 수요실태 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양적 공급에서 주택 재고의 질적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여, 신규 공급과 함께 노후주택 정비, 청년, 고령자 등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익산지역건축사회 채준섭회장은 장기적인 주거여건 향상과 주택공급을 안정화하고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재건축 등이 시작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수익성 도모 및 기간 단축을 위해 용적률 상향과 높이 제한 해제, 부설주차장 완화, 방화지구 해제, 행정절차 단축, 초기비용 지원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 행 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행 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 집 인 임현정
자 문 위 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허만수
전 담 기 자 김종문
편 집 위 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전준홍
등 록 번 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 록 일 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 고 신 청 T. 062)521-0026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500,000원
• 하단광고 : 250,000원
• 하단명함광고 : 15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제27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대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산후케어센터 다온'

설계자 : 박 훈 / (유)제이엠디 종합건축사사무소
오경택 / (주)디엠씨앤에이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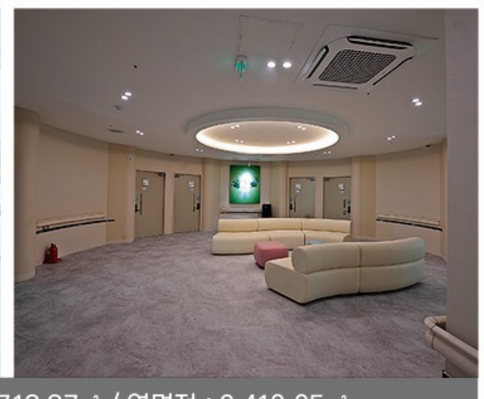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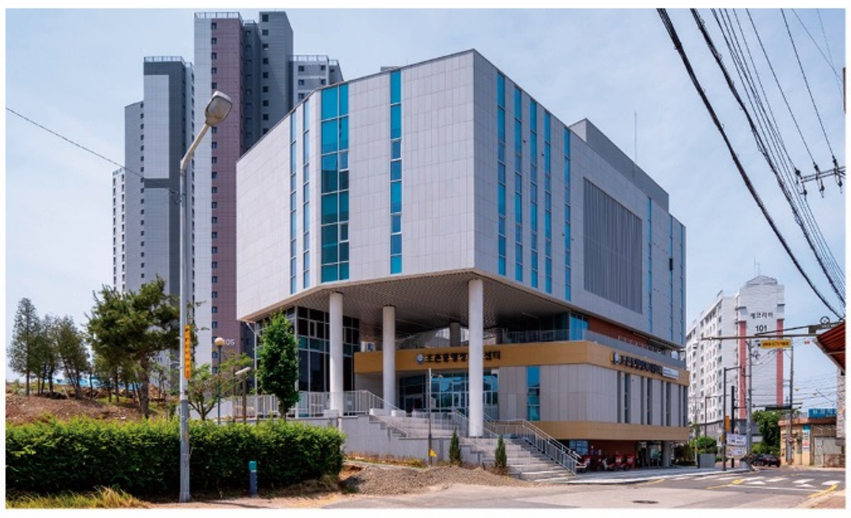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충정로 373 / 대지면적 : 3,764.00㎡ / 건축면적 : 718.87㎡ / 연면적 : 2,410.05㎡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 주요마감 : THK30 라임스톤, THK24 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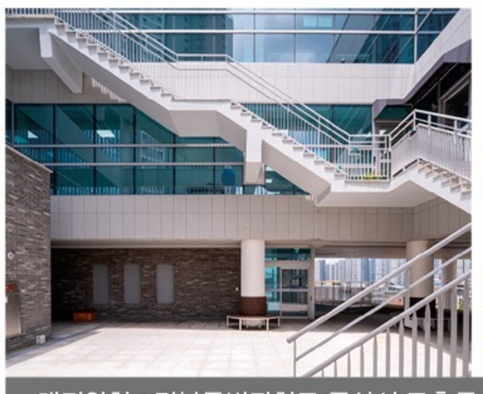
금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군산시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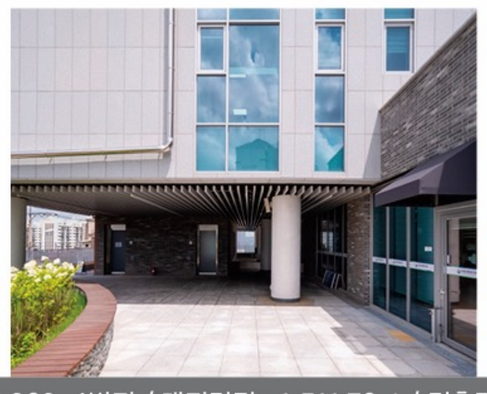
설계자 : 선태훈 / 건축사사무소 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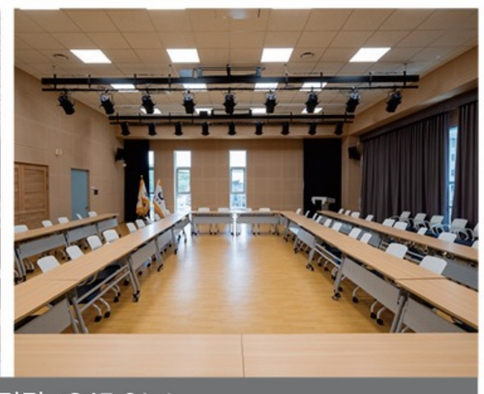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909-4번지 / 대지면적 : 1,511.70㎡ / 건축면적 : 845.21㎡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용도 : 업무시설(공공청사) / 주요마감 : 0.5B점토벽돌치장쌓기, 베이스패널, 화강석

제27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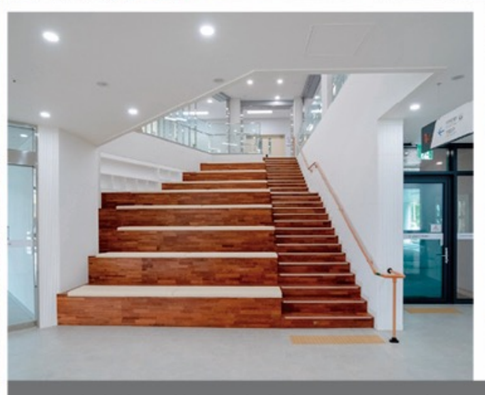
은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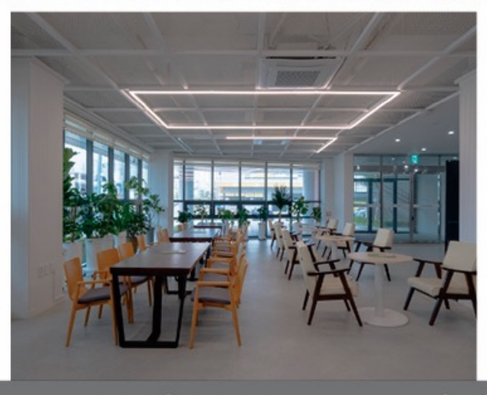
‘군산시 생활 SOC 복합화 가족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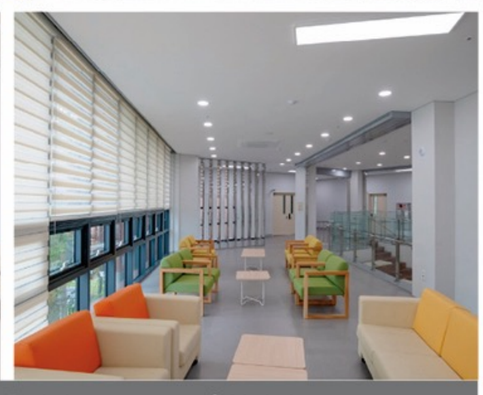
설계자 : 한성호 / 건축사사무소 아이든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동 577-1번지외 / 대지면적 : 4,004.00㎡ / 건축면적 : 929.71㎡ / 연면적 : 2,095.59㎡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용도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 주요마감 : 0.5B점토벽돌치장쌓기, 테라코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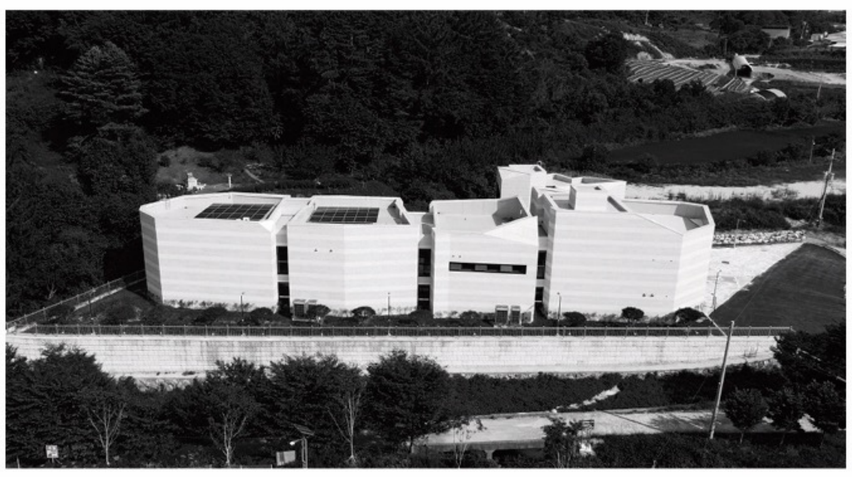
동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지질공원 거점센터’

설계자 : 이태원 / (유)건축사사무소 예인건축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551 / 대지면적 : 1,534㎡ / 건축면적 : 609.34㎡ / 연면적 : 997.31㎡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주요마감 : 섬유강화요업패널, 알루미늄시트